

라영환 교수의 “폴 고갱의 기독교적 이미지 사용에 대한 연구”에 관한 질의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라영환교수님은 상징주의자 폴 고갱(Paul Gauguin)에 관한 논문에서 고갱이 차용한 기독교 이미지는 정작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으며 실은 “화가로서의 조절과 분노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운명지었던 하나님에 대한 거부 등을 표현하기 위함”(p.18)이었다고 명쾌히 분석하였습니다.

고갱은 기독교적인 상징과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기독교적’이란 인상을 풍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설교후의 환상>, <황색 그리스도>,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풍경>을 보면 마치 렘브란트의 성서그림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교수님은 월터스(Wolters)의 입을 빌려 “만약 고갱의 작품이 종교화라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그의 작품속에 신앙적인 메시지가 담겨있어야”(p.3) 하지만 그의 작품에선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설교후의 환상>은 성경의 주제보다 브르타뉴지방에서 행해지던 축제형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p.3) <황색 그리스도>와 <황색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 그리고 <감람산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불운한 현실에 대한 의식을 투영한 것으로 관찰하였습니다. (p.18) 따라서 그가 설정한 그리스도 이미지는 자신이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길을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파악되며, 예술을 종교처럼 인식하는 현대미술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p.14)

고갱의 대표작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도 인간 실존의 버려짐, 버려짐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운명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고갱의 작품속에 흐르는 비관적인 운명론을 식별해냈다고 생각합니다.(pp.10-14)

전체적으로 라교수님의 논문은 고갱의 작품세계와 정신세계를 도상분석을 통해 드러내주었다고 생각되며, 자칫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차용하면 곧 종교화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피상적인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라영환교수님이 고갱의 미술속에 잠재된 문제점을 논의하신 것에 대해선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신학자로서는 드물게 지속적으로 현대예술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시고, 이번에도 고갱의 예술에 관한 통찰력있는 논문을 발표하시는 것에 대해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교수님의 논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논문에서 고갱의 작품은 ‘종교적’ 혹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점을 결론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가 종교성을 결여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성은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인지, 기독교이미지를 빙자하여 엉뚱하게 자아의 내면투영을 시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의 작품은 종교성은 띠었지만 ‘성경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교수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한 것을 보면 스스로를 무거

운 세상 짐을 짊어진 희생양으로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가 참여한 나비파(Nabis 派)의 방향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동료작가인 에밀 베르나르(Emile Bernard)나 모리스 드니(Maurice Denis),세뤼지에(Louis-Paul-Henri Sérusier)와 같은 작가들은 종교적으로 가톨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종교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클루아조니즘(cloisonnisme)에 의해 해석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클루아조니즘은 중세 스테인드글라스에서처럼 검고 굵은 테두리와 2차원의 평면을 중시하는 수법으로 한편으로는 종교적 경건함을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근법을 배제한 현대성을 추구한 것으로 파리 미술계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때 고갱도 클루아조니즘과 연관된 작품을 발표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련의 작품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동일시하면서 일종의 카오스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이 목격됩니다.

고갱은 어릴 적부터 교회와 깊이 연관하며 성장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가톨릭신학교부설 학교에서 수학하면서 뒤팡루(Dupanloup)신부로부터 가톨릭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갱이 견지한 ‘반자연주의 관념론’은 그런 관념론적 신앙체계가 그의 예술세계를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고갱의 종교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드보라 실버만(D. Silverman)은 언급합니다.

이후 고갱이 타히티에 머무는 동안에는 가톨릭교회와 다투면서도 <게프 guêpe>지의 주간으로 앓은 뒤로는 가톨릭교회의 권익을 대변하는 모순적인 입장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열성은 있었지만 대단히 ‘자의적’이었거나 혹은 ‘혼합주의인’ 성격을 띠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한 특징은 마타이에아에서 중세의 성모자상을 타이티퐁으로 개작한 <아베 마리아>란 작품에선 한층 두드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품은 자칫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장면인 것처럼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고갱은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의 제의행위를 통해 원주민의 민속신앙을 그렸습니다. 그런 혼합적인 신앙체계는 ‘히나’라는 우상을 그림의 중심에 위치시킨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갱의 종교는 가톨릭에서 시작하여 혼합주의를 거쳐 원시종교로 흘러간 것처럼 생각됩니다. 물론 고갱의 작품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으며 이점에 대해선 저도 동의합니다. 그의 사상의 발단이 혼합주의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점에 대해 교수님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